

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연구 제2호

#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

성명기

2009. 9



국회에산정책처  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연구 제2호

#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

성 명 기

2009. 9. 21.

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,  
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([www.nabo.go.kr](http://www.nabo.go.kr))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# 목 차

## 요 약 / 3

### I. 논의 배경 / 9

### II. 인구구조 변화 추이 / 13

- 1. 우리나라 인구구조 추이 .....13
- 2. 선진국 인구구조 추이와의 비교 .....19

### III. 저출산 및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/ 27

- 1.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.....27
- 2. 저출산 및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.....29

### IV. 요약 및 시사점 / 35

## 참고 문헌 / 39

## 표 차례

[표 1] 주요국 인구 고령화 속도(년) .....	2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## 그림 차례

[그림 1] 인구증가율 추이 .....	14
[그림 2] 인구구성비 추이 .....	15
[그림 3] 총부양비와 노년부양비 추이 .....	16
[그림 4]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.....	17
[그림 5]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.....	17
[그림 6] 미국 인구증가율 추이 .....	19
[그림 7] 일본과 독일의 인구증가율 추이 .....	20
[그림 8] 프랑스와 영국의 인구증가율 추이 .....	21
[그림 9] 한국과 일본의 인구증가율 전망 추이 .....	23
[그림 10] 한국과 일본의 총부양비 전망 추이 .....	23
[그림 11] 한국과 일본의 노년부양비 전망 추이 .....	24
[그림 12] 노년부양비 상승의 경제적 효과 .....	31

요약



## 요 약

-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.
  - 인구구조 변화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선진국과의 비교검토와 경제적 영향분석 그리고 장기적 대책에 대하여 검토
  
-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 변화추이는 선진국들 중 가장 빠른 둔화세를 보인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이의 둔화 속도는 더 큰 편임.
  -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화 진행속도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.
  -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많이 낮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.
  
-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노년부양비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정책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총수요를 약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며 재정부담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됨.



- 경제적 측면에서 총저축률이 연 평균 1.0%p 하락하면서 금리가 0.26%p 상승하여 설비투자율과 민간소비 수준이 각각 0.23%와 0.11% 감소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 수준도 0.09% 감소
  - 또한 노동공급량이 연평균 0.26% 위축되고 투자부진으로 자본스톡 축적이 0.06% 감소하면서 성장잠재력 수준도 0.15% 약화됨
  - 재정적 측면에서 사회보장비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연평균 4.5% 증가하면서 재정수지가 연간 경상GDP 대비 0.4% 정도 악화됨
- 노년부양비율 상승에 대하여 분석된 실증결과를 현재 2008년에서 12년 연장 적용하여 2020년의 경제모습을 2008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,
- 총수요측면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 확대로 정부소비가 증가하지만 민간소비가 1.2%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2.0% 하락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 수준은 0.9%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
  - 한편 노동공급량이 1.6% 감소하고 투자위축으로 자본축적 수준도 0.6% 낮아지면서 경제의 잠재생산을 나타내는 총공급 수준도 1.2% 감소
  - 재정측면에서 보건의료 및 교육 등 사회보장지출의 확대로 총지출이 37% 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5% 증가에 머물러 재정수지는 총 35조원 정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
-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추세가 중장기적으로 경제 및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

- 정부는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인 ‘새로마지 플랜 2010’에 따라 예산을 영·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 지원, 사교육비 경감 등에 투입하고 있음
  - 이러한 정책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정부의 예산배분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유인이 다분히 있음
  - 그러나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여건을 건전하게 하는데 인구관련 정책이 중요하므로 이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
  
- 재정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연금 및 보건의료 등에 대한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추세인 반면 재정수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적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소요재원 마련에 대한 사전적 검토와 준비가 요망됨.
  
-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과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므로 이에 대하여 가용자원의 활용차원에서 경제활동참가율(특히 여성)과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데 노력할 필요
  
- 한편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인구증가율을 완화내지 상승 전환하도록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미시적 대책의 강구가 요구되며, 이에 대하여 과거 인구정체를 겪었던 유럽 주요국들이 인구증가율을 제고시켰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



I

논의 배경



## I. 논의 배경

-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인구구조적(demographic)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.
  -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구성비에서 유년층이 감소하는 반면 노년층이 확대되고 있으며, 총부양비율은 하락세에서 벗어나 정체되고 있으며 노년부양비는 상승세를 지속
  - 이에 따라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향후 2018년과 2026년 경 각각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.
  
-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요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재정적 부담을 심화시키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.
  -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력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감소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, 다른 한편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수요측면의 약화가 예상됨.
  - 재정적 측면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부담하는 청장년층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재정수입이 저해되고, 노년인구 비중확대로 연금급여 및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 지출 확대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확대

-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나아가 장기적 대책을 살펴 보고자 함.
  - 우리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며 이를 과거에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였던 주요 선진국의 인구구조 변화과정과 비교분석하여 그 의미를 검토
  - 저출산 및 고령화로 표현되는 인구구조 변화의 경제적 의미를 살펴보며, 실제 거시재정모형을 통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분석
  -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및 장기적 대책 필요성을 살펴봄.

## II

# 인구구조 변화 추이

1. 우리나라 인구구조 추이
2. 선진국 인구구조 추이와의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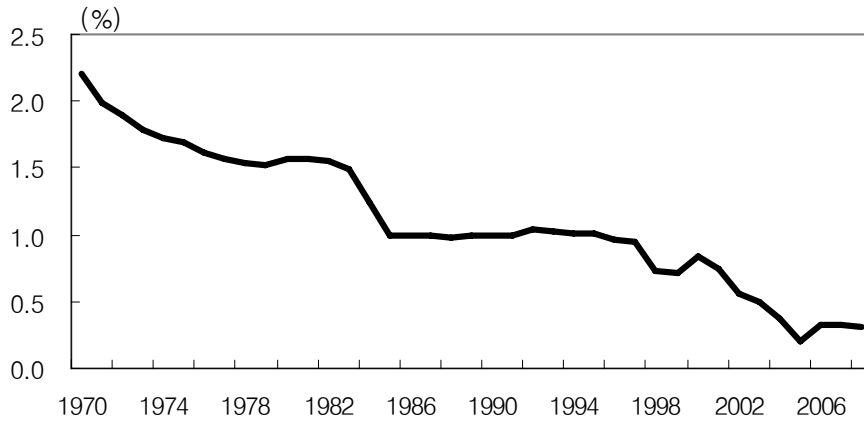


## II. 인구구조 변화 추이

### 1. 우리나라 인구구조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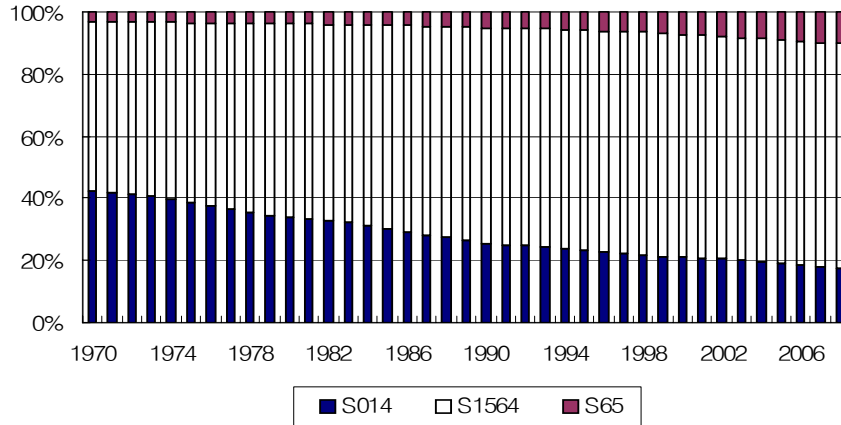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추계기준으로 2008년 현재 4,860만 7천여명을 기록하여 지난 1970년의 3,224만 천여명에 비하여 1.5배 정도 확대되었음
- 그러나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출생률이 저하되면서 인구증가율은 1970년의 2.21%에서 2008년 현재 0.31%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음.
  - 1970년 이후 1984년의 1.24%까지 추세적으로 둔화세를 보였다가 1985~1996년 기간 중에는 1% 내외의 안정세를 지속하기도 하였음.
  - 그러나 외환이후를 겪은 이후 빠른 속도로 둔화되어 2005년 0.21%까지 하락하였으며 2006~07년 중에는 일시적으로 0.33%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다시 2008년 0.31%로 하락

[그림 1] 인구증가율 추이



- 인구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인구구성비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음
  - 전체 인구 중 유년층(0~14세)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(s014)은 1970년의 42.5%에서 1985년 30%이하로 낮아졌으며 2008년 현재 17.4%까지 떨어져 불과 38년 만에 절반이하로 축소
  - 반면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비율(s65)은 1970년 3.1%에 불과하였으나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2008년 현재 10.3%까지 확대
  - 한편 15~64세의 청장년층 인구(s1564)는 1970년 54.4%에서 확대 추세를 보이면서 1977년과 1993년에 각각 60%와 70%를 돌파하였으나, 이후 상승세가 완만해지면서 2008년 현재 72.3%를 기록

[그림 2] 인구구성비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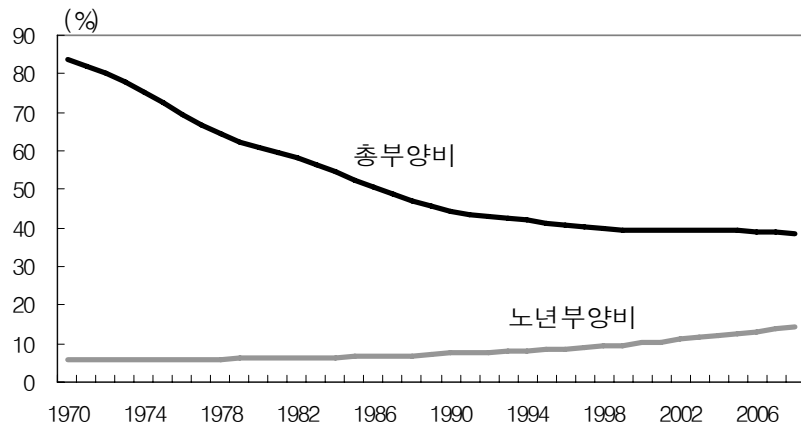


-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.
  - 총부양비<sup>1)</sup>는 1970년의 83.8%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8년 39.7%로 떨어졌으나 그 이후 하락세가 완만해지면서 2008년 현재 38.4%를 시현
  - 생산가능인구가 둔화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년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인구가 증가하면서 총부양비가 하락세를 지속하였지만 최근 유년인구의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총부양비는 하락세에서 벗어나 정체되는 모습

1) 총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(15~64세 인구)에 대한 비생산연령인구(0~14세인구 + 65세 이상 인구)의 백분비로써,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며, 경제적으로 총부양비가 상승하면 저축능력이 저하된다.

- 한편 노년부양비<sup>2)</sup>는 1970년 5.7%에 불과하였지만 유년인구 비중이 급감하는 반면 영양상태 및 건강관심 제고와 의학발달로 노년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2008년 현재 14.3%까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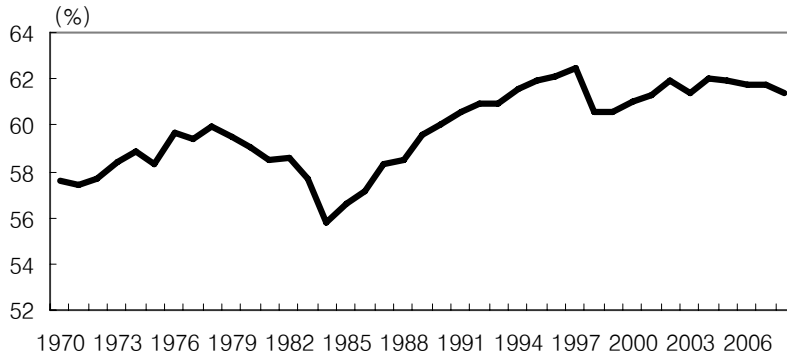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총부양비와 노년부양비 추이



-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율<sup>3)</sup>은 완만한 확대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정체되는 모습
  - 1970년 57.6%에서 1997년 62.5%까지 상승하였으나, 외환위기 이후 저 성장률과 고 실업률의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61% 선에서 정체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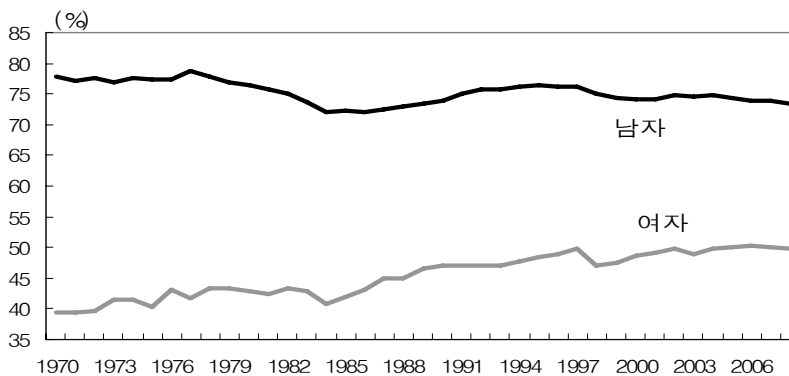
2)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(15~64세 인구)에 대한 노년인구(65세이상 인구)의 백분비이다.  
 3)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(취업자 및 실업자)가 차지하는 비율

[그림 4] 경제활동참가율 추이



- 성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확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.
  -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의 77.9%에서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2008년 현재 73.4%로 4.5%p 하락
  -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진출에 힘입어 1970년의 39.3%에서 2008년 현재 49.9%로 10.6%p 확대

[그림 5]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



- 그러나 우리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추이는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가 그러한 편임.<sup>4)</sup>
  - 미국, 일본 및 유럽국가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~80% 수준을 기록하여 우리의 61%에 비해 크게 높음
  -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의 경우 70% 내외를 기록하여 우리의 50%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편임.
  
-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장래 인구구조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추이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
  - 총인구는 2019년 4,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 4,234만명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임
  - 전체 인구대비 유년층 인구 비중은 2008년 17.4%에서 2050년 8.9%로 급감하는 반면 노년층 인구 비중은 2008년 10.3%에서 2050년 38.2%로 급증하며, 청장년층 인구 비중은 2008년 72.3%에서 2016년 73.4%까지 확대되지만 그 이후 감소하면서 2050년 53.0%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
  - 총부양비는 2008년 38.4%에서 2016년 36.3%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증가하여 2050년 88.8%까지 상승하며, 노년부양비는 2008년 14.3%에서 2027년 32.6% 그리고 2050년 72.0%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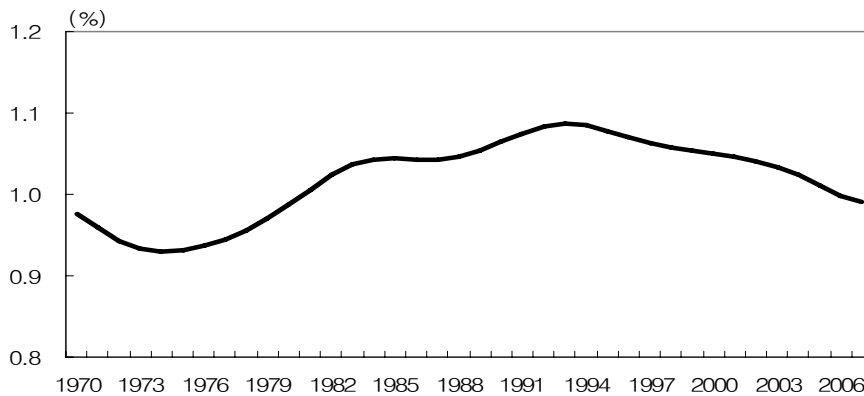
---

4) 최숙희(2001, pp. 24~25) 참조

## 2. 선진국 인구구조 추이와의 비교

- 선진국의 1970~2007년 중 인구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국가마다 상이함.
- 미국은 인구증가율이 둔화되지 않고 1% 내외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다른 선진국들보다 월등히 높음
  - 이는 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, 다른 한편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인

[그림 6] 미국 인구증가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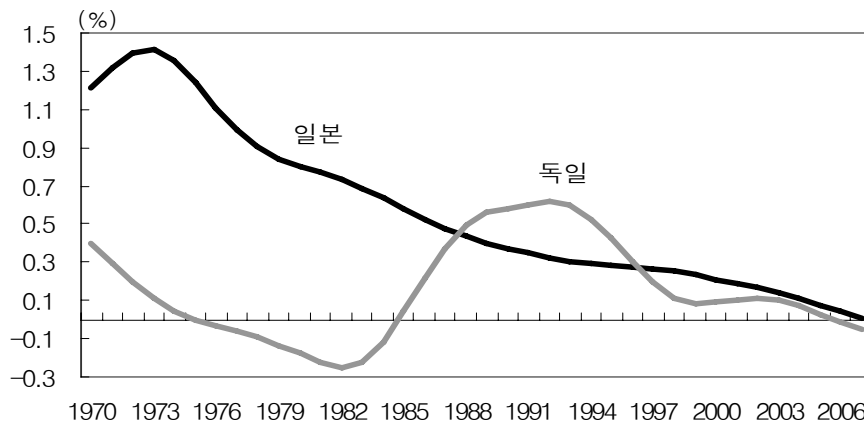


- 반면 일본과 독일은 인구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면서 최근 영의 상태에 진입
  - 일본은 1970년의 1.21%에서 1973년 1.41%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07년 현재 제로(0.01%) 상태에 도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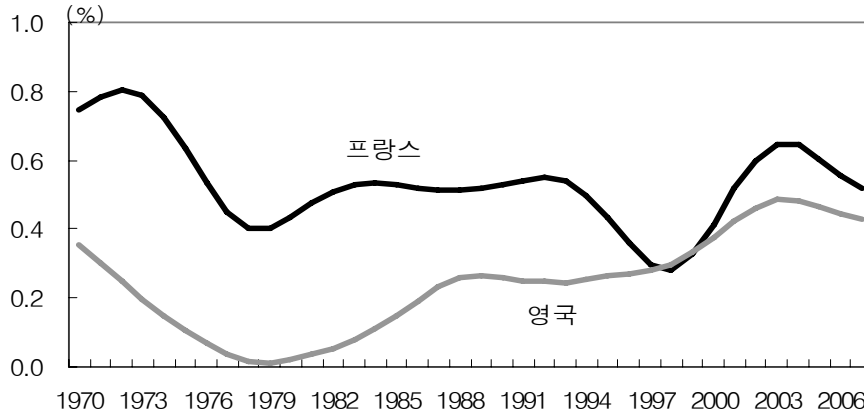
- 독일은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970년 0.40%에서 둔화하여 1976~1984년 중에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후 1992년 0.62%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며 다시 둔화되면서 2007년 현재 영(-0.05%) 수준을 기록

[그림 7] 일본과 독일의 인구증가율 추이



- 한편 프랑스는 인구증가율 변동추이가 일정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영국은 높아지는 모습
  - 프랑스는 인구증가율이 다소의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0.5% 내외 수준을 지속
  - 반면 영국은 1970년의 0.36%에서 둔화되어 1979년에는 제로 수준에 도달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확대되면서 2007년 현재 0.43%를 기록

[그림 8] 프랑스와 영국의 인구증가율 추이



- 한편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정도를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모든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고령화 진행속도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, 우리나라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.
  - 한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년인구의 비율이 지난 2000년에 7.2%를 기록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, 향후 2018년에 14.3%로 고령사회에 들어서며, 2026년에는 20.8%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.
  -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은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72년과 115년으로 장기간이며, 또한 독일과 일본도 각각 40년과 24년의 중기간이지만 반면 한국은 18년에 불과할 것으로 보임.
  - 또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은 이전 변화기간보다 짧아지는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40년과 38년에

걸쳐 진행되며 미국과 일본은 각각 16년과 11년이지만 한국은 8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됨.

[표 1] 주요국 인구 고령화 속도(년)

	고령화사회 → 고령사회	고령사회 → 초고령사회
일본	24	11
독일	40	38
미국	72	16
프랑스	115	40
한국	18	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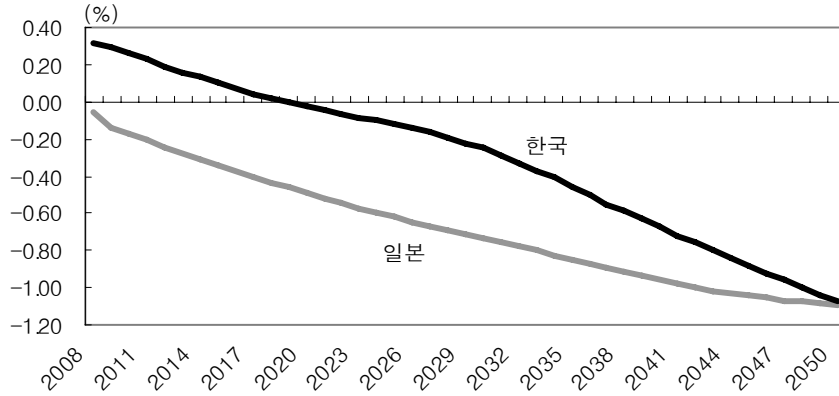
주: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고령화사회는 7% 이상, 고령사회는 14% 이상, 초고령화사회는 20% 이상임.

자료: 정후식, 「일본의 고령화 진전과 정책대응」, 한국은행, 2007. 12

□ 장래전망에 대하여 선진국 중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 하락추세는 일본의 경우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하락 속도는 일본보다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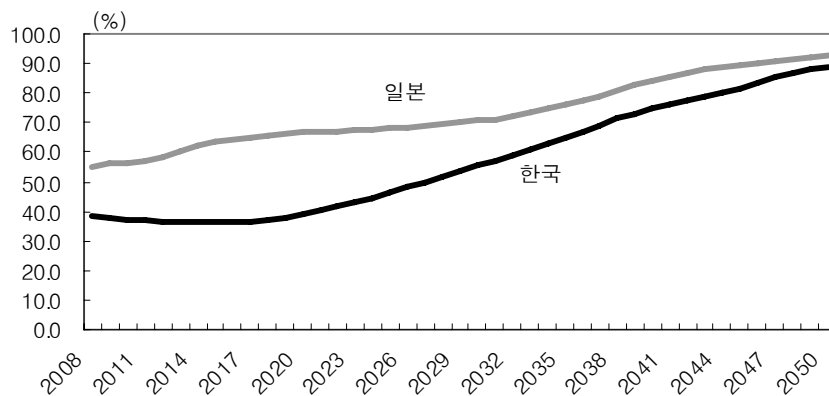
- 2008년 현재 인구증가율은 한국이 0.31%이나 일본은 -0.06%의 감소로 돌아섰음
- 그러나 일본의 인구증가율 감소세가 2050년 -1.09%까지 낮아지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여 2020년 감소로 전환되고 2050년 -1.07%로 일본과 비슷한 수치로 예상됨

[그림 9] 한국과 일본의 인구증가율 전망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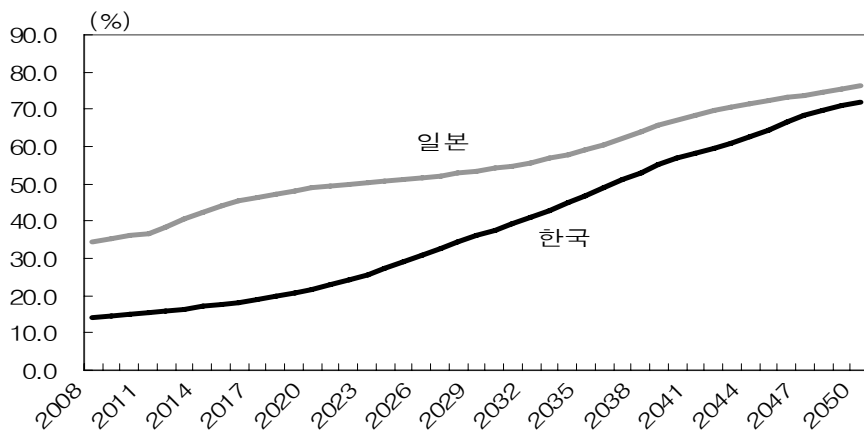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 하락세가 빠르다보니 인구구조 변화도 빨리 진행되어 총부양비와 노년부양비도 빠르게 상승
  - 총부양비는 2008년 현재 한국이 38.4로 일본의 54.9를 크게 하회하고 있지만 2050년에는 일본이 93.0으로 상승하는데 대하여 한국은 88.8로 거의 근접할 것으로 예상

[그림 10] 한국과 일본의 총부양비 전망 추이



- 노년부양비도 2008년 현재 한국이 14.3으로 일본의 34.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2050년에는 일본이 76.4로 상승하는데 대하여 한국이 72.0으로 거의 접근할 것으로 예상됨

[그림 11] 한국과 일본의 노년부양비 전망 추이



### Ⅲ

## 저출산 및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

1.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
2. 저출산 및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



### Ⅲ. 저출산 및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

#### 1.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

-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증가율의 둔화는 인구구성비를 변화시키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됨.<sup>5)</sup>
- 이에 대하여 이혜훈(2002)은 노동시장, 자본시장, 성장잠재력 그리고 재정 등 4개 부문에 대한 영향을 지적하였는데 이를 살펴봄.
- 먼저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침
  - 노동력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인구대비 비중이 감소하며 또한 노동력인구가 고령화되어 노동력 공급이 축소됨
- 둘째,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침
  - 경제이론에서 생애주기가설(Life Cycle Hypothesis)<sup>6)</sup>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 생애에 걸쳐 일정수준의 소비생활을 영위하도록 행동함. 소득이 없거나 적은 유년층 및 노년층에는 저축보다 소비가 많은 음의 저축을 하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청장년층에는 양의 저축을 함

5)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기초적 실증연구는 『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(Ⅰ)』(한국개발연구원, 2003)를 참고할 수 있겠다.

6) Ando and Modigliani(1963)



- 따라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고령화가 진전되면 저축성향이 낮은 노년층 및 비근로계층의 비중이 확대되므로 경제 전체의 저축률이 저하됨
  - 또한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구성에서 청장년층은 고수익이며 고위험인 주식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노년층은 저수익이며 안전자산인 채권을 상대적으로 선호하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침
- 셋째,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침
- 인구구조 변화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공급을 축소시키고 또한 저축률 하락을 통하여 자본스톡 축적을 저하시키므로 생산함수에서 투입요소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이를 상쇄시킬만한 생산성 향상이 없다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됨
-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는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
- 노인인구 비중의 확대는 연금급여 및 의료비지출을 확대시키게 되며, 노동력의 고령화는 교육비지출을 높이므로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시킴.
  - 반면 재정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부담하는 청장년층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것은 재정수입을 위축시키게 됨

## 2. 저출산 및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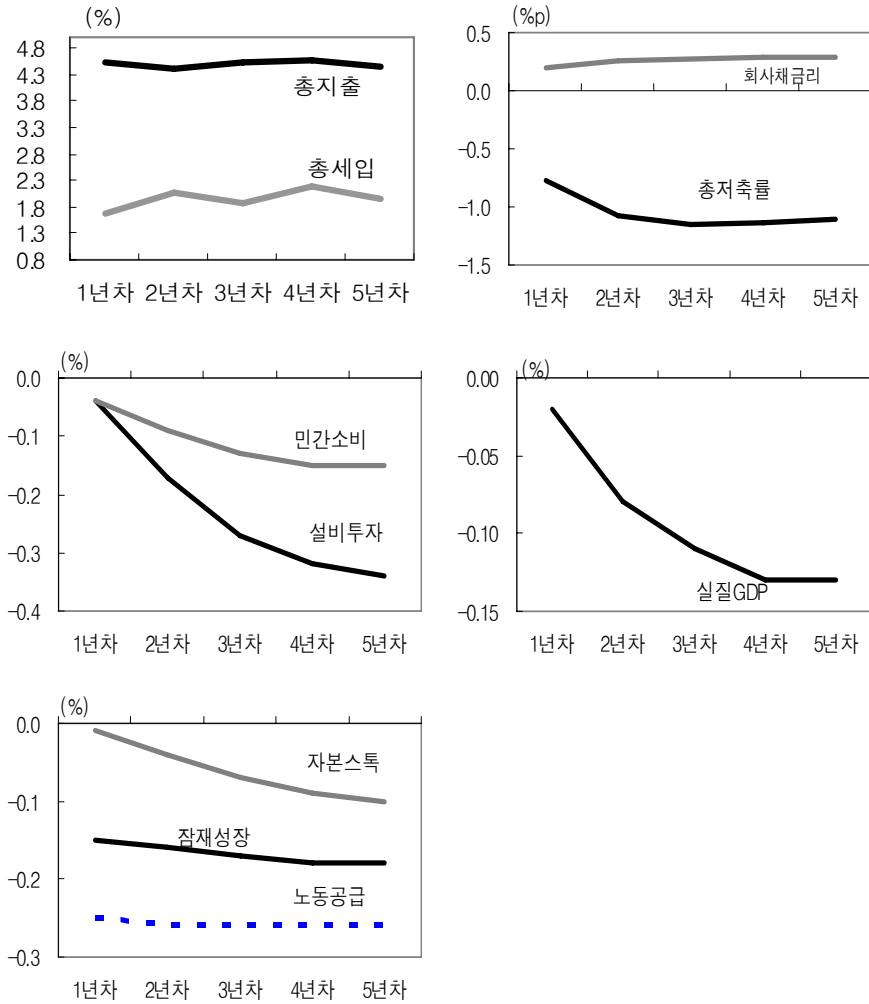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로 표현되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립방정식 형태의 연간 거시재정모형을 사용하였음.<sup>7)</sup>
  - 본 모형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구조를 총공급, 총수요, 재정, 금융, 노동, 물가 및 대외 등 7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반영
  - 특히 거시부문과 재정부문이 구체적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추세가 거시 및 재정부문에 영향을 미치도록 고려
- 본 모형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변수인 노년부양비에 5% 증가시키는 충격을 주어 이의 성장, 재정 등 내생변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
  - 최근 5년 기간에 대한 표본 내 분석을 하였으며, 동태적 탄력성을 계산<sup>8)</sup>
- 노년부양비가 확대되는 경우 성장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고 성장잠재력은 약화되며 재정수지도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
  - 저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총저축률이 연평균 1.0%p 정도 하락하고 이에 따라 회사채금리가 0.26%p 상승

7) 이 부분은 『인구구조 변화가 성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』(성명기, 국회예산정책처, 2008. 4)의 모형을 수정 및 보완한 결과임.

8) 이 모형을 통한 결과는 수치는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한 경제이론에 따른 것으로서 다른 이론에 의한 분석 시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분석에서의 수치는 대략적인 의미만을 지니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

- 금리상승으로 설비투자과 민간소비가 각각 연평균 0.23%와 0.11% 감소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 수준은 연평균 0.09% 소폭 감소
-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연평균 0.26% 감소하고, 투자위축으로 자본스톡도 0.06% 감소하면서 경제의 잠재적 생산을 나타내는 총공급 수준도 연 0.15% 약화
- 재정부문에서 보건의료 및 교육에 대한 정부역할 확대로 총지출이 연평균 4.5% 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.9% 증가에 머무르며 이에 따라 전체 재정수지는 연평균 경상GDP 대비 0.4% 정도 약화

[그림 12] 노년부양비 상승의 경제적 효과



□ 노년부양비 상승에 대한 분석결과를 현재 2008년에서 12년 연장 적용하여 2020년<sup>9)</sup>의 우리 경제 모습을 2008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,

9) 2020년은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되는 시점임.

- 총수요측면에서 민간소비가 1.2%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2.0% 하락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 수준은 0.9%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
- 한편 노동공급량이 1.6% 감소하고 투자위축으로 자본축적 정도도 0.6% 낮아지면서 경제의 잠재생산을 나타내는 총공급 수준도 1.2% 감소
- 재정측면에서 보건의료 및 교육 등 사회보장지출의 확대로 총지출이 37% 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5% 증가에 머물러 재정수지는 총 35조원 정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

IV

## 요약 및 시사점



## IV. 요약 및 시사점

-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.
  -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구성비에서 유년층이 감소하는 반면 노년층이 확대되고 있음.
  - 총부양비율은 하락세에서 벗어나 정체되고 있으며 노년부양비는 상승세를 지속하는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완만한 상승세에서 벗어나 정체를 보이고 있음.
  
- 우리의 인구구조 변화를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면
  - 인구증가율 변화추이는 선진국들 중 가장 빠른 둔화세를 보인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이의 둔화 속도는 더 큰 편으로 평가됨.
  -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령화 진행속도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.
  - 경제활동참가율도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크게 낮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.



-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노년부양비를 인위적으로 높여 이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정책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노년부양비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총수요를 부진하게 하고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는 가운데 재정부담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
  - 경제적 측면에서 총저축률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상승하여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실질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며
  - 노동공급이 위축되고 투자부진으로 자본스톡 축적도 저해되면서 경제 전체 성장잠재력도 약화되며
  - 재정적 측면에서 사회보장비를 중심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
  
- 노년부양비 상승에 대한 분석결과를 현재 2008년에서 12년 연장 적용하여 2020년의 모습을 2008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,
  - 총수요측면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 확대로 정부소비가 증가하지만 민간소비가 1.2%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2.0% 하락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 수준은 0.9%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
  - 한편 노동공급량이 1.6% 감소하고 투자위축으로 자본축적 정도도 0.6% 낮아지면서 경제의 잠재생산을 나타내는 총공급 수준도 1.2% 감소
  - 재정측면에서 보건의료 및 교육 등 사회보장지출의 확대로 총지출이 37% 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5% 증가에 머물러 재정수지는 총 35조원 정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

-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추세가 중장기적으로 경제 및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
  - 정부는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인 ‘새로마지 플랜 2010’에 따라 예산을 영·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 지원대상 확대, 사교육비 경감 등에 투입하고 있음
    - 이러한 정책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정부의 예산배분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유인이 다분히 있음
    - 그러나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여건을 건전하게 하는데 인구관련 정책이 중요하므로 이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
  - 재정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연금 및 보건의료 등에 대한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추세인 반면 재정수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적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소요재원 마련에 대한 사전적 검토와 준비가 요망됨.
  -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과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므로 이에 대응하여 가용자원의 활용차원에서 경제활동참가율(특히 여성)과 생산성을 선진국수준으로 제고하는데 노력할 필요
  - 한편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인구증가율을 완화내지 상승 전환하도록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미시적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며, 이에 대하여 과거 인구정체를 겪었던 유럽 주요국들이 인구증가율을 제고시켰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



## [참고문헌]

- 대한민국 정부, 『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』, 2006. 9.
- 성명기, 『인구구조 변화가 성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: 연간 거시재정 모형을 이용하여』, 연구보고서, 국회예산정책처, 2008. 4.
- 이혜훈, “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소고,” 『노동정책연구』, 제2권 제2호, 한국노동연구원, pp.23~50, 2002.
- 정후식, 「일본의 고령화 진전과 정책대응」, 한국은행, 2007. 12.
- 최숙희, 「외환위기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추이와 그 시사점」, 삼성경제연구소, 2001. 11.
- 최숙희, 「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」, 삼성경제연구소, 2006. 9.
- 통계청, 『장래인구추계』, 2009
- 한국개발연구원, 『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(I)』, 최경수·문형표·신인석·한진희 편, 2003.
- Ando, A. and F. Modigliani, "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: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," American Economic Review, Vol. 53, pp. 55~84, 1963.



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연구 제2호

##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

---

발 간 일 2009년 9월 21일  
편 집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팀  
발 행 인 신 해 룡  
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 
인 쇄 처 (주)메이커뮤니케이션 (Tel 02·761·8340)

- 
1.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  2.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팀 (Tel 02·788·4744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--

ISBN 978-89-6073-233-9 93350

발간등록번호: 31-9700329-000687-14

© 국회예산정책처, 2009.